

여수 합성수지 분쇄공장 화재

여수의 한 합성수지 분쇄공장에 불이 나 84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12월30일 오전 2시경 전남 여주시 만흥동 김모씨 소유의 합성수지 분쇄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내부 495m²와 합성수지 제품 등을 태워 8400여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불을 처음 목격한 인근 공장 직원은 “옆 공장에서 불꽃과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화학차 등 소방차 14대를 출동시켜 진화에 나섰으나 유독가스와 검은 연기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주와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0/12/30>